

#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 개막…AI 신기술·제품 집대성

## ■ CES 2026 전시·콘퍼런스

최대 규모 단독 전시관 조성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 한눈에

TV 등 세계 최고 신제품 선보

삼성전자가 오는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6’에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고 ‘더 퍼스트룩(The First Look)’을 개최한다. ‘더 퍼스트룩’은 삼성전자가 CES에 맞춰 진행되는 전시와 프레스 콘퍼런스 등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한 명칭으로, 삼성전자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원 호텔에 업계 최대인 4628㎡(약 1400평)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조성하고,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를 주제로 전시와 프레스 콘퍼런스, 삼성 기술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시관은 이번 행사 주재인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에 맞춰, 엔터테인먼트 캠페인·홈 컴패니언·케어 캠페인 등의 3개의 전시존으로 구성됐다.

### △ 기술·예술 결합, ‘AI 갤러리’

‘AI 갤러리’는 20m 길이의 터널 형태 디스플레이에 공간 프로젝션 맵핑(Spatial Projection Mapping) 기술과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한 몰입형 공간이다. 관람객들은 ‘AI 갤러리’에서 한국적 미학의 정수로 평가받는 전설의 ‘인왕제색도’와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문강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작품들을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오로라와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에서 도시의 불빛이 삼성전자의 대표 제품으로 이어지는 영상은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라는 주제를 형상화 한 것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 △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제품 한눈에

삼성전자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이 총망라된 ‘엔터테인먼트 캠페인’ 존에서는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130형 마이크로 RGB TV’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6’에 마련된 원호텔 삼성전자 단독 전시관에서 대형 터널 형태의 ‘AI 갤러리’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삼성 마이크로 RGB TV’는 100㎍ 이하 크기의 RGB LED 소자와 고성능 AI 엔진을 탑재해 독보적인 색상과 명암비를 구현한다.

‘130형 마이크로 RGB TV’는 초대형 디스플레이에 슬림한 프레임 디자인이 적용돼 마치 집 안의 거대한 창(窓)인 듯 공간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비전 AI 캠페인’은 영화 시청 중 촬영지나 배경음악에 대해 질문하면 답을 제공하고, 요리 영상 속 레시피를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해당 영상의 레시피를 작성해준다.

삼성전자는 TV 시청 경험을 한층 풍부하게 하는 최신 사운드 기술과 사운드 기기 신제품도 소개했다.

프랑스의 유명 가구 디자이너 에르완 부홀레(Erwan Bouroullec)와 협업한 와이파이 스피커 신제품 ‘뮤직 스튜디오 오.5.7’가 전시됐다. 이 제품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디자인

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 2026년 라인업에 새로 추가된 올인원 사운드바도 전시됐다. 이 제품은 벽걸이와 월마운트 설치를 모두 지원하며, 4개의 내장 우퍼가 탑재돼 별도 서브우퍼 없이도 깊이 있는 저음을 구현한다.

2026년형 삼성전자 사운드 기기들은 한층 확장된 ‘큐 심포니(Q-Symphony)’ 기능을 지원한다. TV와 최대 5대의 사운드 기기가 연결돼 동시에 사운드를 구현하고, AI 알고리즘이 공간 구조와 기기 배치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채널 분포를 최적화해 한층 몰입감 있는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 △ 일상을 선사하는 ‘홈 컴패니언’

‘홈 컴패니언(Home Companion)’ 존에서는 집안일을 덜어주고 더 나은 삶을 선사하는 다양한 가전들이 대거 전시됐

다. 전시 하이라이트 존에서는 보고 듣고 말하며 사용자와 교감하는 ‘홈 컴패니언’으로 진화한 AI 가전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2026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는 카메라·스크린·보이스 기능이 탑재돼 사용자 일상의 편의를 크게 높인다.

주방 가전 전시에서는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니(Gemini)’를 탑재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와 ‘인피니트 AI 와인 냉장고’를 만나볼 수 있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는 내부 카메라를 통해 식재료를 인식하는 ‘AI 비전(AI Vision)’ 기능에 제미니가 결합돼 식품 인식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인피니트 AI 와인 냉장고’ 신제품은 카메라와 와인 라벨을 인식해, 스마트싱스 와인리스트에 와인 품종, 빈티지 등 와인의 세부 정보와 보관 위치 등을 자동으로 기록해준다.

삼성전자는 차원이 다른 의류 관리 경험을 제공하는 2026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와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 신제품도 공개했다.

### △ 건강·안전 돌보는 ‘케어 캠페인’

‘케어 캠페인’ 존에서는 나와 가족,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돌봐주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다.

이 곳에서 ‘멀티모달 디지털 바이오마커(Multimodal Digital Biomarker)’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수면상태나 걸음걸이, 팔뚝 등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인지 기능 저하를 사전에 감지해주는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다.

‘멀티모달 디지털 바이오 마커’는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 로 측정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사용자의 인지 상태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인지 장애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임상 검증을 진행 중이다. 반려 동물 진단 서비스 브랜드 ‘라이벳(Livet)’과 협업한 스마트싱스 기반의 새로운 케어 서비스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날 출시한 두 번 째는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비롯해 ‘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정의선 “현대차그룹에 AI는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

### 정 회장 새해메시지…체질 개선 등 강조 AI 등 산업 변화…“더 큰 성장 기회 있어”

현대자동차그룹이 5일 신년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경영환경과 올해 경영 방향성, 신사업 등에 대해 전세계 임직원들과 소통했다.

특히 AI, SDV, 로봇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개발 현황과 기술 내재화 및 연관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의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가 미래 산업 전환의 흐름을 주도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분절 등 글로벌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동시에 AI로 대표되는 기술 패권 경쟁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선 회장은 새해메시지를 통해 고객 관점의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체질 개선, 본질을 꿰뚫는 명확한 상황인식과 민첩한 의사 결정, 공급 생태계 동반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확대,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과감한 협력으로 생태계 확장, 산업과 제품의 새로운 기준 선도를 제시했다.

먼저 정 회장은 “2025년은 전혀 없는 수준의 경영환경 변화를 겪은 한해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맡은 역할을 다해준 신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2026년은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경영환경과 수익성은 악화되고, 경쟁사의 글로벌 시장 침투는 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특정 지역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회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고객 관점의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체질개선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어려워지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때, 우리를 지켜줄 가장 큰 버팀목은 바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는 체질개선”이라고 말했다.

또 체질개선을 통해 현대차그룹이 단단해진다고 해도 내부의 힘만으로는 고객의 기대를 넘는 제품이 완성될 수 없다는 인식 속에 공급 생태계 동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일 2026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올해 신년회에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해 경영 방향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개발 현황과 기술 내재화 및 연관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의지, 조직문화 등에 대해 임직원들과 소통했다.

정 회장은 “공급 생태계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고, 생태계가 건강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크고 작은 우리의 생태계 동반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업계와 국가 경제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낌없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AI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경쟁 방식이 빠르게 바뀌면서 글로벌 제조업은 거대한 산업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며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과감한 협력으로 생태계 확장을 통해 AI가 촉발한 산업 전환기에 맞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우리는 이 어려운 변화 속에서 산업과 제품의 새로운 기준을 선도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회장의 새해 메시지에 이어 현대차그룹 김해민 인사실 부사장의 진행으로 주요 경영진들이 참여한 좌담회가 진행됐다. 좌담회는 사전 실시한 임직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의 미래 준비’에 대해 임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경영진들이 진성성 있게 답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정 회장은 AI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장재훈 부회장은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전환

은 물론 자율주행, 로봇틱스, 수소 사업 전략에 대해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 기아 송호성 사장, 현대모비스 아규석 사장이 각 사의 사업계획에 대해 답하고, 현대차그룹 성 김 사장이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만프레드 하러 사장이 현대차그룹 미래 핵심 기술 로드맵, 루크 동커볼레 사장이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정 회장은 “AI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범용 지능 기술’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무력화시키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기술”이라며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AI 역량을 내재화하지 못한 기업은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AI 기술 내재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피지컬 AI로 중심이 이동할수록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자동차, 로봇과 같은 ‘움직이는 실제’와 ‘제조 공정’ 데이터의 가치는 희소성을 더해갈 것이며, 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하고, “데이터와 자본, 제조 역량을 갖춘 현대차그룹에게 AI는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힘줘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현대차 모베드, 로봇틱스 부문 최고혁신상 기술 경쟁력 입증…AI 자율주행 기술 탑재

현대자동차가 4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로 보틱스 분야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매년 제품작 중 혁신성, 디자인,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혁신상을 수여한다. 그 중 최고혁신상은 각 부문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상작에 부여된다.

올해 현대차는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ile Eccentric Droid, MobED)’로 로봇틱스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현대차가 CES에 참가한 이래 처음으로 수상한 혁신상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최고혁신상으로 받은 것은 로봇틱스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주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일본 국제 로봇 전시회(iREX)에서 최초 공개한 양산형 모베드는 2022년 CES에서 콘셉트 모델로 첫 선을 보인 이후, 약 3년 간의 제품개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사업 및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했다.

모베드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행 안정성’이다. 편심 휠 기반 DnL(Drive-and-Lift) 모터를 적용해 불규칙한 노면이나 경사로부터도 차체를 원하는 기울기로 조절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또 사용 목적에 따라 배송, 물류, 촬영 등 탑 모듈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결합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성이 높다.

누구나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모베드의 강점이다. 모베드를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별도의 조종기는 3D 그래픽 기반의 터치 스크린으로 구현돼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모베드는 너비 74cm, 길이 115cm, 최대 속도 10km/h로 1회 충전 시 4시간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최대 적재중량은 라인업에 따라 47~57kg 수준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